



백삼위 한인성당

2701 W.237th St. Torrance, CA 90505
www.103skcc.org 103skccusa@gmail.com

담임신부 626-215-7224
전교수녀 213-804-9151
평협회장 310-408-1443
연령회장 310-749-8942
사무실 310-326-4350

주일미사	주일전날저녁	오후 7시	평일미사	월,화	미사없음
	아침미사	오전 7시 30분		수	오후 7시 30분
	가족미사	오전 9시 30분		목,금	오전 9시 30분
	교중미사	오전 11시	신심미사	첫 토요일	오전 9시 30분
고해성사	평일 · 토요일 미사 30분 전				

사무실 업무시간	
월,화,토	휴무
수,목,금	8:30am - 12:30pm
주일	8:30am - 12:30pm

(다해) 부활 제3주일

입당 : 129 파견 : 130

화답송 Responsorial Psalm

◎ 주님,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.

(시편 30, 2, 4, 5-6, 11-12, 13)

- 주님,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.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,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.
주님,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,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. ◎
-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,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.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.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,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,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. ◎
- “들으소서, 주님,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. 주님,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.”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, 주 하느님,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라. ◎

◎ I will praise you, Lord, for you have rescued me.

(Psalm 30:2, 4, 5-6, 11-12, 13)

- I will extol you, O LORD, for you drew me clear and did not let my enemies rejoice over me. O LORD, you brought me up from the netherworld; you preserved me from among those going down into the pit. ◎
- Sing praise to the LORD, you his faithful ones, and give thanks to his holy name. For his anger lasts but a moment; a lifetime, his good will. At nightfall, weeping enters in, but with the dawn, rejoicing. ◎
- Hear, O LORD, and have pity on me; O LORD, be my helper. You changed my mourning into dancing; O LORD, my God, forever will I give you thanks. ◎

제 포 (2)

제포가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은 여러 가지다. 진짜 아 마포는 결이 곱고 품이 있다. 거칠고 무작스런 것에선 순결 이 나올 수 없다. 제포의 힘은 세련에서 오고 그 결은 고귀 하다. 그러면서도 힘에 차 있다. 참 아마는 튼튼하다. 거미 집처럼 아무 바람이나 나부끼는 앙상한 물건이 아니다. 참 다운 순결이란 나약한 그 무엇이 결코 아니다. 삶을 기피하 거나 망상에 빠지거나 헛된 꿈을 꾸지 않는다. 참 순결은 삶의 기쁨으로 생동하고 불굴의 의지로 굳세다.

제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묵상거리가 있다. 지금 눈앞에 있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다듬어지고 깨끗하지는 않았었다는 점이다. 당초에는 거칠고 불품 없던 것을 자주 빨 고 바랜 끝에 비로소 새뜻하고 조촐해진 것이다. 순결이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. 순결도 하느님 은혜임에 틀림 없다. 조촐함을 특으로 영혼에 받아 지냈기에 내적 순결 의 신선을 평생 발휘하는 이들도 물론 있다. 그러나 그것은 예외다. 우리가 통념으로 순결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그 뜻이 애매하고, 그저 큰 풍파는 겪지 않았다는 정도이다. 참다운 순결은 시초에 있지 않고 종국에 있다. 꾸준하고 끈 질긴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이다.

제대에는 새하얗게 곱고 튼튼한 제대보가 깔려있다. 순결 과 내심의 고아와 신선한 생기를 뜻한다. 요한 성인의 묵 시록에 ‘아무도 그 수효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군중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왔는데 모두 흰 두루마 기를 두르고 옥좌 앞에 서 있더라’는 말씀이 있다. 이것을 보고 한 사람이 묻기를 “흰 두루마기를 두른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” 하니, “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로서 어린양이 흘리신 피에 두루 마기를 씻어 희게 만들었고, 그러므로 하느님 옥좌 앞에 있 으면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”고 대답하였다고 적혔다. “나를 흰옷으로 입히소서” 하고 성제를 집전할 사 제도 장백의를 입으면서 기도드린다.



▶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

일시 : 5월 4일(주일), 교중미사 후

장소 : 강당

▶ 안나회 모임

일시 : 5월 11일(주일), 교중미사 후

장소 : 소회의실

▶ 2025년 희년(Jubilee) 캠페인

1)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

2)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

3)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

▶ 백삼위 예술작품 전시회

본당의 날(6월 8일)을 맞이하여 백삼위 신자들의 예술작품 전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. 작품전시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학생들의 작품들도 환영합니다.

예술작품 : 서예, 그림 등

작품제출 : 6월 7일(토), 오전 10시

문의 : 이명렬 라파엘 ☎ 310-749-0278

우리들의 정성

교 무 금 \$ 3,800.00

주일헌금 \$ 2,646.00

감사헌금 \$ 1,100.00

합 계 \$ 7,546.00

강영미	김대우	김선영	김정희	김충섭	김태은	나경흠	백삼진희
박베라	박종열	박진숙	박토니	송순자	송현지	안재안	오명섭
이선민	이은혜	정은아	최상만	김병조	박건양		